

초등돌봄, 올해 1학기만 1만5108명 대기

작년 한 해 발생한 대기자 수 '이미 근접' 지역별 수용률 격차...9%p에서 26%p로

올해 1학기만 1만명 이상이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고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급 격차도 매년 벌어지고 있어 교육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뉴스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을 통해 받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공급·수요 및 수용률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에서 올해 8월까지 1만5108명이 초등돌봄교실 대기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기자는 1만7719명으로 2020년 9622명보다 8097명(84.2%) 급증했는데, 올해 한 학기 만에 이 수치가 근접한 것이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37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394명, 강원 1339명, 전북 1188명, 충남 1166명 등 17개 시도 중 5곳(29.4%)에서 1000명 이상의 대기자가 발생했

다.

이 같은 초등돌봄교실의 '공급 부족'은 17개 시도별로 그 정도가 달랐는데, 이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대비 실제 이용자 비율을 뜻하는 '수용률'은 지난 2020년 92.5%, 2021년 94.4%, 2022년 95.7%로 상승 중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17개 시도 중 수용률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 간 격차는 9.4% 포인트, 15.5% 포인트, 26.5% 포인트로 점점 커졌다. 특히 올해 서울(99.3%)·인천(112.5%)은 신청자 대비 수용률이 100% 이상인 반면, 전북(89.7%)·제주(86.0%) 등은 10명 중 1명 이상이 신청하고도 돌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초

등돌봄은 대부분 오후 1시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실이나 겸용 교실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오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물리적으로 돌봄교실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돌봄 수요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관계자는 "증실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난해 167실에서 올해 172실로 5실(3.0%)밖에 늘리지 못했다"며 "반면 신청자는 5809명에서 6501명으로 11.9% 늘어 갑자기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은 정부가 추진해 온 온종일 돌봄체계 중 '학교 돌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지난 2004년부터 교육부가 주관 부처로 운영해왔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재원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맡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

에 투입한 교육교부금만 총 3004억 9800만원에 달하는 등 매년 수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공급 부족과 지역별 격차 문제는 지속 중이다.

KEDI 연구진이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요 대비 공급의 충분성'에 대한 부정 응답이 37.4%로 모든 평가 항목 중 가장 불만족도가 높기도 했다. 한편 초등돌봄교실 신청자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27만7513명, 2021년 30만711명, 2022년(8월 기준) 30만521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에 돌봄공간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모델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재환기자



진도소방,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주의 당부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진도=조상용기자



무안소방, 야간 안전 보행기 LED램프 설치

무안소방서(서장 박익승)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 15일 몽탄면에 위치한 당호마을을 찾아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담양 생활안전순찰대, 취약계층 가스차단기 설치로 화재예방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 생활안전순찰대는 취약계층(독거노인 등)을 방문하여 가스차단기 설치 등 화재예방 활동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무등산국립공원, 국립공원 친환경 숲속 결혼식 운영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태현)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친환경 숲속 결혼식'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순천경찰,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가족 전전대회 참석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지난 25일 순천시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가족 전전대회에 참석해 지역별 자율방범대원들을 격려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완도해경, '찾아가는 섬마을 행복해 행정서비스'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완도군 노화읍 어룡도에서 도서지역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섬마을 행복해 행정서비스'(이하 이동민원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채본부

'수련활동 제외에 분노' 중학생 교실 흥기소란... "심리 상담 지원"

"다음달 예정된 수련활동 제외 되자 흥기 준비"

수련활동에 보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내에서 흥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교내에서 과잉행동·시뮬 거부 등의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어 수련활동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6분께 서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A군이 흥

기를 든 채 친구들을 위협 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교사가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을 내보내고 A군만 남겨 한 뒤 경찰에 신고해 흥기에 의해 다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실에서 흥기소란을 목격한 학생 2명이 심리적으로 놀라 귀가조치

됐다.

조사결과 A군은 자신만 수련활동 참여가 제외됐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흥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은 범행에 앞서 이달 초 교사에게 과잉행동을 보여 1주일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8일에 진행된 영어듣기 평가를 거부해 처분이 한달 연장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처분 연장에 따라 A군에게 다음달 예정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A군의 행동을 목격한 같은 학급의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집단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동채본부



한 끼를 위한 기다림

27일 오전 대구 중구 신천동치 대봉교에서 열린 '2022 중구복지박람회'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5·18 조사위, 계엄군 암매장 추정 30곳 조사한다

옛 광주교도소·동구 주남마을·남구 송암동 등 학살지 유력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5·18 암매장 제보내용의 선형조사와 유해 조사·발굴용역' 수행을 위한 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조사위는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으로부터 이관받은 53곳의 암매장 제보 현장 중 30곳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암매장 진술에 참여한 계엄군 58명의 증언을 교차검증한 결과 30곳이 우선 선별됐다. 조사 지역으로는 옛 광주교도소와 남구 송암동, 동구 주남마을 등 학살 사실이 확인됐고, 암매장

증언이 반복된 곳 등으로 알려졌다.

옛 광주교도소에선 5·18 직후 관사 뒤뜰에서 시신 8구, 교도소 앞 야산에서 시신 3구가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이송된 중상자들이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사라졌다는 전직 교도관의 증언도 있다. 최소 52명이 교도소 내에서 사망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주남마을에도 뒷산에 주둔하던 11공수여단으로부터 '사체처리반'이 운용돼 암매장이 자행됐다는 마을 주민들의 구체적 진술이 있다. 11공수여단 4개 팀이 5·18 직후 광주에 다시 내려와 사체 수습에 참여했다는 증언도 확

보됐다.

이밖에 송암동 분뇨처리장 주변에서는 계엄군이 시신 9구를 신고 나주 방면으로 갔다는 증언이 있다.

조사위는 다음달 6일 공모를 마감하고 업체를 선정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도중 암매장이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실제 발굴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위는 최근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 262구 중 160구에 대한 유전자 정보(DNA) 감식을 진행해 5·18 당시 행방불명됐던 화순 출신 20대 남성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국과수 DNA 감식 결과와 대조해 A씨의 신원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최이슬기자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망자 대부분 지하1층서 발견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망자 대부분이 1층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7일 소방방곡에 따르면 구조 당시 사망자 7명 모두는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망한 3명은 60~70대로 다른 사망자들에 비해 비교적 고령에 속한다.

사망자 중 6명은 남성이며 여성 1명은 60대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졌다. 연령대는 30대 2명, 50대 1명, 60대 3명, 70대 1명이다.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장감식이 27일 30여분 지연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했다.

이날 소방당국과 경찰, 한전 등 관계기관 합동감식은 총 8개 기관 20여명 규모로 화재 원인과 함께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작동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사고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화재는 26일 오전 7시45분께 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택배·정수·방재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파악됐으며, 개장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선욱기자